

81. 10. 7



「환경보호운동」 앞장

平民 朴英淑 부총재

환경문제삼당소「녹색의 전화」대표로 민간 차원의 환경오염방지운동에 앞장 서고 있는 平民 朴英淑 부총재. 전국 각 지역의 환경오염실태를 경고하

나 단신생활대로 미지수 라고.



로 없이 국민 전체가 나서야 할만큼 절박한 상태」라고 진단했다. 부총재는 光州·全南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며 원전 추가건설, 서해안 개

「原電건설등 全南원형지역」

汚染심각... 국민적극 나서야

는 자리에 단물감사로 나 서고 있는 부총재는 제 21회 YWCA 민중논단 「환경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」를 주제로 강연 을 갖기 위해 내광여전이

漢江, 雪嶽山, 仁川 앞 바다 오염실태를 날마다 공개국토오염의 심각성 을 일깨워줬던 부총재는 「최근 우리 환경오염상황 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

박사업 등으로 향후 오염 가중설이 가장 높은 「원형 지역」임을 지적. 특히 전국의 5백80여 개의 정수기 시설중 5백 20개를 조사한 결과 부

적격 판정을 받은 9개가운데 7개가 湖南지역에 서 발견된 사실을 지적 하며 「이 지역 식수오염 도는 전국 최고치」라고 밝 혀 湖南지역 식수오염실태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 웠다. 부총재는 「정부측 의 자료독점과 민간차원 의 조사한계, 환경오염 의 인식부족 등이 환경보 존운동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」이라고 토로하고 「光州시민들이 범국민운 동 차원에서 환경오염방지 운동을 펼칠 것을 당부 했다. (서울支社 崔進기자)